



2020 11 vol.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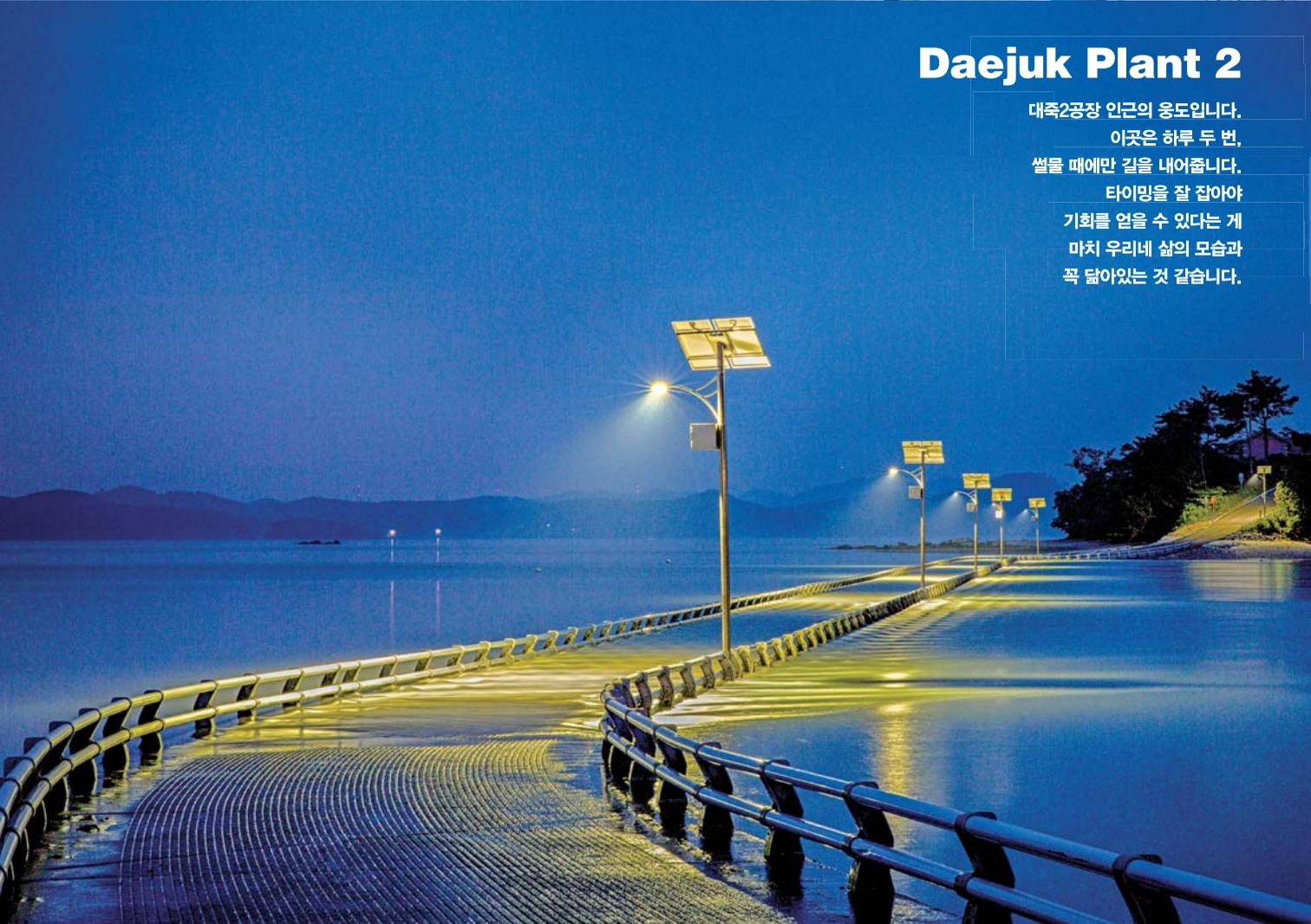
Better | Life | Value | **Create**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



Daejuk Plant 2

대죽2공장 인근의 옹도입니다.
이곳은 하루 두 번,
썰물 때에만 길을 내어줍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마치 우리네 삶의 모습과
꼭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社歌

무겁지 않게(즐거운 듯이)

양명문 작사
최창권 작곡

Musical score for the company song with lyrics in Korean. The score includes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b),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lyrics are as follows:

새역사 누비면서 앞장서 전진하네
 은세계 주름잡아 바다 멀리 약진하네

즐거찬기세 - 로 큰포부가슴에 안고
 새로운기세 - 로 큰공로 세워나가며

슬기와 단결로 창 의 능력 발휘하여
 성실로 뭉치고 협동으로 발전하여

복지 낙원 건설하세 두팔에 새힘이 솟네
 산업 건설사명위해 몸바쳐 땀을 흘리세

(후렴) 우리는 영예로운 산업의 역군이 다

건설의 깃발 - 높이 날리자 아 -

아 K C C 우리 의 K C C

Contents

Theme



04 Theme Story

06 4인4색 인터뷰
KCC가 품은
무지갯빛 나눔

Company



10 Close Up 실리콘 Part 1. 시장 트렌드

12 Part 2. 공장소개
국내 실리콘 종합 생산기지
대죽2공장

14 Part 3. 제품소개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KCC실리콘

18 Part 4. 인터뷰
현장에서 질문하고 공정개선으로 답하다
대죽2공장 실리콘제품생산팀 안병일 반장

20 KCC건설 현장탐방
구도심을 되살리는 명품 주상복합단지
안양 KCC스위첸 신축공사 현장

24 All about KCC글라스
도담도담 자라는 우리 아이를 위해
안전한 바닥재 '숲 도담'

26 현장매거진
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클린 분임조

30 영업소 이야기
말은 자리의 주인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대구영업소

34 KCC ISSUE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온기도 UP

38 KCC EGIS
We Are Strong!
우승을 향해 첫 발을 댄 KCC EGIS
2020-2021 프로농구 개막

Culture



42 슬기로운 DIY 생활
건강 & 학습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숲으로홈앤스테인으로 '우리 아이 책상 만들기'

44 트렌드 백과
건강한 삶을 향한 소비 트렌드
'안전·건강 제일 소비'

46 사이언스
유리의 화려한 변신
투명 디스플레이

48 비즈니스 잉글리시 가이드북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반 공지 이메일 작성법

50 주기율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는_소통(나트롬)

52 KCC NEWS

54 우체통

55 함께하는 걸음
가을은 독서의 계절
"하루에 30분 책을 읽읍시다"

Create + 나눔

11월의 테마는 '나눔'입니다.

2020년 11월호(통권 333호)
주식회사 KCC 월간 사보
발행일 2020년 11월 2일
신고번호 서초 라11683호
신고일자 2016년 8월 17일
발행인 민병삼
편집인 민병삼
발행처 (주)KCC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02-2269-3613
표지사진제공 서산시

“하나의 불꽃을
많은 곳에 나눠도

처음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 탈무드 中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눌 때에, 문득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찌됐건 무언가를 나누어야 한다는 건, 지금 당장은 내 시간을 쓰거나 혹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야 하기 때문일 테다. 이 모든 것들에서 나눔의 뿌듯함이 아니라,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나눔을 멈추고 '내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한 사람 마다의 나눔 불씨가 꺼져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는 컴컴하고 삭막한 곳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행했던 나눔이 사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전해온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아깝다는 생각은 커녕 내 비어버린 마음을 보며 오히려 행복감이 느껴질 것이다. 내가 나눠준 마음이 다른 이들의 삭막한 마음을 깨우는 모습을 본다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주위로 윙아 또 다른 이를 깨우고 그렇게 마음이 마음을 타고 퍼지면서 컴컴하던 우리 사회가 다시금 환히 빛나는 모습을 본다면, 나누어주며 비어버렸던 마음 공간이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가득 찰 것이다.

KCC가 품은 무지갯빛 나눔 지식공유 & 사회공헌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KCC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는 '최고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 둘째는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한 공헌 활동'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KCC가 잡은 포인트는 바로 '나눔'. KCC의 '지식공유'와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나눔'의 가치에 대해 들어봤다.

SFA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 나눔

KCC SCM운영팀 오윤식 대리



“정보 공유는 무형의 자산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요즘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와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수집, 공유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요. SFA(Sales Force Automation)는 이러한 정보 공유를 위한 운영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각 부문별로 각자의 양식과 채널을 통해 시장 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했기에 타 부문과의 공유가 어려웠는데요. 2015년부터는 영업, 기술, 마케팅 등 각 부문의 정보를 표준화된 IT 시스템인 SFA로 집중하여 데이터 자산화를 시작해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 및 연결하여 영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지금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FA가 개시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꾸준히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선행 판촉 정보의 공유 확대, 온라인 제품정보 시스템 운영 등 보다 효율적인 영업 활동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2020년 현재까지 SFA에서 약 9천여 건의 협업이 수행될 만큼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고, 협업 완료 기간이 초기 대비 4일 가량 단축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FA가 사내의 원활한 지식, 정보 공유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능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SF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시스템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키워드 구독, 관심글 등록, 개인화 설정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거나, 관련 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초대나 협업 기능도 유용합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향후 판촉·수주 부서에서 입력한 프로젝트 정보를 분석하여 소요 시점 별 수요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부문과 공유하여 최적의 납기, 재고 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정보의 길을 만들어, 우리 KCC가 성장하는 데 있어 커다란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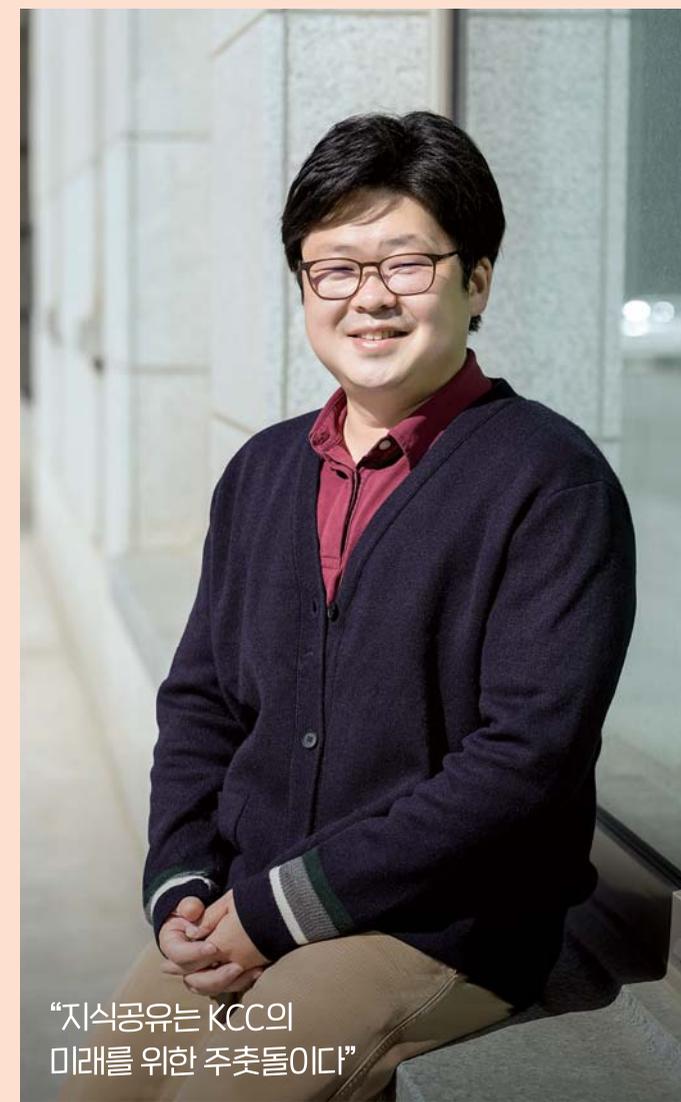
KCC의 미래를 만드는 지식공유의 장, 연구소 포럼

KCC 연구지원팀 정재훈 차장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경쟁자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2020년 현재는 고객들이 다양한 루트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라 요구하는 제품과 기능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융·복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분야 기업의 경우에는 융·복합을 통해 자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One & Only 등 미래 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런 미래 준비를 위해 KCC는 유기, 무기, 첨단소재 및 실리콘 등 다양한 부문별로 오랜 기간 쌓아 온 탄탄한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60회의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문별 이슈와 수행과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담당 기술임원 및 영업·TSD·생산·품질 등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부문·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왔으며, 깊은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포럼은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공유하면서 KCC를 대표하는 부문간 협력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그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엔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동차 분야의 규제 강화가 이슈인데, 포럼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세이빙 기술, 경량화 소재 다변화 대응 코팅 시스템, 박판 유리 접합을 통한 경량화 기술, 고강도 복합 소재 및 자동차 파워모듈용 방열소재 등 주요 아이템 별 기술개발 및 영업 전략이 전개돼 트렌드에 발맞춘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을 통해 KCC의 미래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역할과 목표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모아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포럼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KCC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지식 나눔, 정보 공유는 필수입니다. 개인이 가진 지식, 정보가 '자신만의 자산'이 아닌 'KCC 전체의 자산'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연구지원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문간 원활하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비대면 포럼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원들의 지식·경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개선하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우리 함께 '세계 최고'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공유는 KCC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다”

연탄으로 전하는 KCC건설의 따스한 온정

KCC건설 안전과 위험진 과장



“나눔은 ‘더불어 나누는 행복’이다”

도심 속 높이 솟은 마천루를 보고 있으면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연탄 구입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데요, 어느 가정은 연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잠을 자는 방 안에까지 연탄을 쌓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눔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KCC건설에서는 2014년 서울 상계동과 여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연탄배달나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활동이지만, 많은 임직원들이 나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참여해주시고 계신데요, 1박2일간 함께 봉사하면서 팀워크 향상도 도모하고, 연탄 한 장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KCC건설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지역 주민분들께도 통하고 있는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에서 얻은 추억거리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부산 지역에서 연탄 배달을 하고 있던 중에 주민분들께서 따뜻한 믹스커피를 직접 타 주시며 “KCC건설에서 연탄을 나눠준 덕분에 이번 겨울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좁고 높은 언덕길에 힘들다고 생각했었지만,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민들 덕분에 그날은 유독 따스한 웃음이 넘치는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좋은 기억이 쌓이다 보니, 앞으로는 KCC건설에서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내자면 결식 우려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정에 쌀 나눔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에 동참해주시고, 올 겨울에도 함께 활동해 주실 KCC 건설 임직원분들께 담당자로서 ‘더욱 의미있고 안전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KCC건설의 행복을 기대해주세요.

우리 손으로 시작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KCC 총무팀 남아정 사원

‘더 좋은 기업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자세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CC는 한 걸음씩 더 좋은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KCC는 현재 제품을 활용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와 함께하는 저소득 가구 집수리 ‘새뜰마을’ 사업, 서울시 저층주거지재생사업 ‘온 동네 숲으로’, 서초구 저소득 가구 집수리 ‘반딧불하우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사업장 별로 매년 70억 원정도의 비용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통해 불우이웃과의 상생을 추구하면서 ‘더 좋은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사회복지에 대해 단지 이론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요, KCC에 입사하여 사회공헌 담당자가 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점과 우리의 손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임직원 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면서 이 가치를 더욱 빛내고 계시지만, 더 큰 빛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사활동을 의무교육 중 ‘인성교육’ 함양 항목에 포함시켜서, 제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본사에 설치된 기부금 단말기 참여 확대를 위해, 연중 기부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연말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해 ‘나의 기부금이 소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벤트도 늘려 임직원분들의 부담 없는 봉사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사회공헌(CSV)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KCC도 그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KCC가 산업에서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눔은 ‘성장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Silicone

실리콘 II

무수한 산업의 필수템이 된 '실리콘'. 광범위한 활용 분야 만큼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지난 10월호 Close Up Part 1에서 실리콘의 간략한 역사와 KCC 실리콘 역사를 살펴 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선 세계의 실리콘·실란트 시장의 추세를 알아본다.

Part 1. 시장 트렌드



실란트



Sealant



密封胶



Dolgu macunu



कमामा



Chất bịt kín



Dichtmittel

명사

(1) 토목, 건축,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부재 상호간 창틀 등의 접합부 및 빈틈에 사용돼, 기밀, 수밀의 기능 외에 부재 상호간의 신축, 진동, 변형을 흡수 완화하기 위한 고무상의 물질 또는 연질 혹은 고점도의 액상 고무 조성물.

* 실리콘의 정의와 국가별 단어는 10월호 참고

세계 실리콘 시장은 래속 성장중

실리콘 시장은 다양한 산업군과 함께 성장해왔다. 안정적인 화학구조로 탄력성과 반응성이 좋고, 열 전도율이 낮으며 생체 독성이 거의 없다는 특성 덕분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까닭이다. 1943년 미국의 다우케미컬사가 대량 생산에 성공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산업 공정, 건설·건축, 퍼스널케어 및 소비재, 운송업, 전자, 의료, 에너지 등에서 활용되며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앞으로도 건축 분야의 수요 증가, 전자전자, 신소재 개발 등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실리콘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Markets and Markets가 발행한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실리콘시장은 2019년 204억 3,902만 달러에서 연평균 7%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286억 1,31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 제품, 건설·건축, 퍼스널케어 등 최종 특히 산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19년 기준 98억 8,177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8.4% 증가해 2024년엔 147억 6,614만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리콘 시장의 성장은 전자칩,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PCB), LED 장치 등 정보 통신 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기인한다. 전자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리콘 소재의 기능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기술 개발이 앞으로의 실리콘 시장 승자를 가리는데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실란트 역시 안정적 성장세

자동차 산업, 우주 항공 산업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실리콘 실란트의 활용도 주목 받고 있다. 실란트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접착성과 탄성으로 자재의 연결 부분과 갈라진 틈을 메워주고, 자재를 단단하게 고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고온 및 저온 저항성, 단열성, 내구성, 마감성, 내수성, 내화학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여러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 비행기, 우주 항공기 제조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 등의 개발로 활기를 띠고 있고, 우주 항공분야도 민간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실리콘 실란트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설 분야, 제조 분야를 가리지 않는 넓은 활용 범위 덕분에 세계 실리콘 실란트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5.7% 성장하여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패시브(Passive·실내의 열기나 냉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 기술에서 실리콘 실란트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바람을 타고 해당 지역에서 실리콘 실란트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란트 시장은 앞으로 산업 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 산업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DIY(Do It Yourself)와 셀프 인테리어가 트렌드로 부상하여 대중의 구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장재와 같은 비내구재 소비량의 확대도 두드러져 산업을 넘어 민간 소비까지 만족시킬만한 제품이 앞으로 실란트 시장 경쟁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Part 2. 공장 소개



대죽2공장

- 준공일 : 2007년 5월 30일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대죽로 35 (대죽리 11-4)

국내 실리콘 종합 생산기지

대죽2공장

KCC 대죽2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원료부터 2차 제품까지 일관생산하고 있다. 대죽2공장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친환경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부산물 감축, 수율향상 및 재활용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왔다. KCC 실리콘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죽2공장을 소개한다.

실리콘 모노머부터 2차 제품까지 일관생산 체제 구축

KCC는 최첨단 신소재산업인 실리콘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주 실리콘공장을 출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7월에 대죽2공장을 준공하고 2007년 9월에는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처음에 7만 톤 생산규모의 실리콘 공장 건설로 출발한 대죽2공장은 점차 2차 제품 생산설비를 갖추어 나갔다. 2008년에는 도료와 실란트 등의 충전제로 쓰이는 흡드실리카(Fumed Silica) 공장을 완공하고 2011년에는 이를 증설했다. 또한 2011년에는 고온경화형 HCE와 검(Gum) 설비를 완비하고, 2012년에는 액상실리콘고무 LSR과 상온경화형 RTV 설비를 완비했다. 현재 대죽2공장은 연간 실리콘 모노머 7만

톤, 2차 제품은 연간 2만 8천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실리콘모노머, 폴리머, 실리콘검, 흡드실리카, HCE, LSR, RTV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대죽2공장은 원료인 실리콘 모노머(MCS)부터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국내 유일의 최첨단 실리콘 생산기지다. 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품질관리로 국내외 우수 기관으로부터 2008년 ISO 9001:14001 인증, 2010년 IATF 16949 인증을 각각 획득하였다.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실리콘 공장의 표준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는 실리콘제품을 생산하는 대죽2공장은 친환경 제품에 걸맞게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화된 대

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세정식 흡수시설, 활성탄 흡착시설, 여과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등을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공장, 환경적인 공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안전·환경 점검체계 구축, 시설개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최우선 대죽2공장 만들기를 위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공무참여 품질분임조에서 공장 전원 참여 안전분임조로 확대 운영하며, 안전문화 장려를 위해 안전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정보, 유해화학물질,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담은 안전수첩을 새로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 안전의식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에 대해 JSA(Job Safety Analysis, 작업안전분석)를 통해 안전위험요소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9월에는 '대죽2공장 안전분임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공장을 통해 대죽2공장이 글로벌 실리콘공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공장의 모든 인원이 단합하여 노력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

대죽2공장 실리콘 사업은 그 동안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획기적으로 성장 전환에 성공하면서 모든 직원들의 단합으로 최고의 품질, 생산성 및 원가최적화를 이

루었고, 영업에서도 매출·이익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우수혁신과제(Big-Y) 및 분임조과제 운영 등으로 생산성·품질개선활동도 지속추진하고, 매년 전사대회와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혁신 활동을 추진중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리콘 사용처, 사용량과 흡드실리카, HCE, RTV 등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RTV의 수요가 지속 증가 및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한 국내 전자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공기청정기형 마스크에 대죽2공장의 LSR을 납품 테스트한 결과가 우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죽2공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추가적인 원가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료인 MCS, 흡드실리카에 대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공무, 실리콘 공정, 기술 등 모든 파트를 아울러 원가개선 TFFT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52시간 체제에 맞춰 설비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대죽2공장은 이 같은 혁신 노력과 강력한 원가·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생산규모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실리콘 최고의 공장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모멘티브社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고, 끈끈한 노사화합을 기반으로 더욱 강고한 원가·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MC(Methylchlorocide) 저장 Ball Tank



MCS제조에 사용되는 대죽2공장 증류탑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KCC실리콘

대죽2공장에서는 KCC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실리콘 원료부터 2차 제품까지 일관생산하고 있다. MCS, 흙드실리카, HCE, RTV, LSR 등 실리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죽2공장의 실리콘 제품을 소개한다.

* 대죽2공장 생산제품 중 LSR은 10월호 제품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CS(Methylchlorosilane, 메틸클로로실란)

MCS는 실리콘 메탈과 메틸클로라이드 가스를 기체-고체 반응을 통해 합성한 물질이며 모든 실리콘 제품의 출발점이다. MCS는 다양한 형태의 실리콘 오일, HCE, LSR, RTV, 실란트 등의 실리콘을 만들 수 있으며, 건축, 전기전자, 화장품, 자동차, 정밀화학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KCC는 실리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원료인 MCS 제조공정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MCS는 실리콘 산업의 핵심인 만큼 안정적인 실리콘 제품 품질 물성

확보를 위한 최적 운전 조건이 요구됨과 동시에 생산성 증가와 저원가운영에 대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대죽2공장에서는 MCS 제조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MCS 합성 배합·공정 최적화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생산운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품질 지속 모니터링 및 개선을 진행 중이며 원가경쟁력을 위해 유관부서 협업을 통한 배합·공정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MCS에서도 M1(Methyltrichlorosilane), M3(Trimethylchlorosilane)은 타사 대비 고순도로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 반도체용 SiC(실리콘 카바이드)의 원료, 화장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 화장품 원료 및 전자산업에 적용되는 메틸클로로실란인 M3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배합·공정 최적화를 통한 M3 증량 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는 M2(Dichlorodimethylsilane)에 초점을 맞춰 MCS 합성 생산을 하였다면, 향후에는 시장상황에 맞춰 생산물량을 유동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대죽2공장에서는 MCS 제조 기술력의 강점과 모멘티브사와 협업을 통해 경쟁사 대비 원가우위를 가진 최적 생산 기술과 친환경 프로세스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색분말형태의 흙드실리카

흙드실리카(Fumed Silica)

흙드실리카는 기본 입자가 나노 사이즈인 백색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M1(Methyltrichlorosilane), STC (SiliconTetrachloride)와 같은 실란을 원료로 고온의 수소, 산소 화염에서 가수분해를 통해 합성 제조되는 고순도의 규소화합물이다. 실리콘(RTV, HCE, LSR 등)과 도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계적 물성 보강제, 충전제로 주로 사용된다.

대죽2공장에서는 현재 3종의 친수성 흙드실리카 제품을 생산하여 실리콘 2차 제품 및 KCC 도료 국내·해외 전 공장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 고무인 HCE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HCE에 적용시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의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흙드실리카

제품군의 주요 인자는 비표면적¹⁾에 따라 제품 적용 시 물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표면적 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 물성 외에 각 Grade 별로 입도 분포, 흡유량, 흡광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흙드실리카 물성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재건축 등 여러 산업 영역에서 흙드실리카와 같은 특수 실리카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대죽2공장에서는 제품군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표면처리를 통한 소수성 흙드실리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란 원료 다변화에 따른 배합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재료 가격과 급변하는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1) 비표면적 : 입자의 단위 질량당 표면적



HCE(Heat Cured Elastomer)

HCE는 고점도의 열경화성 실리콘고무다. 상온 경화성 실리콘고무인 RTV와 대비해 HTV(High Temperature Vulcanization, 고온경화용 실리콘고무)라 부르기도 한다. HCE는 고점도 폴리머인 실리콘 검(Gum)을 주 원료로 다양한 첨가제를 배합, 분산한 실리콘고무로 내열성, 내한성, 난연성, 내후성, 절연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유연성, 복원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죽2공장은 2008년 연간 1만 톤 규모의 HCE 생산 플랜트를 완공하여 상업 생산을 개시하고, 2011년 연간 1만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추가 증설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량을 확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HCE 생산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HCE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수년간 완성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시장에서 새로운 용도 개발을 통해 수익성 향상 및 시장 점유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전기차 부품 시장의 성장 또한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KCC에서도 전기차 부품 시장 관련신규 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더 나은 HCE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스페셜티 제품 개발개발을 통해 수익성 높은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사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응대와 향후 모멘티브社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신규 어플리케이션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HCE 생산과정



원료투입 및
베이스 컴파운드 제조



경화제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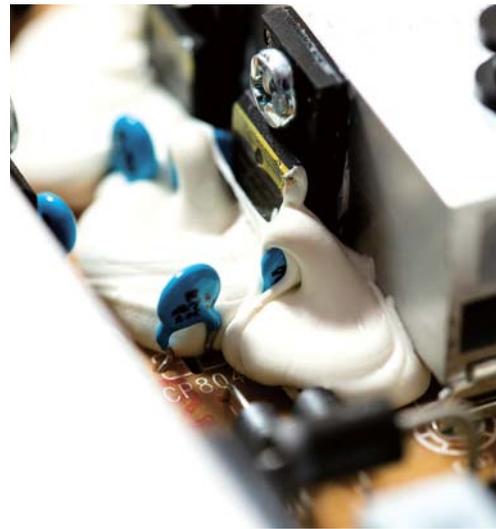


가열·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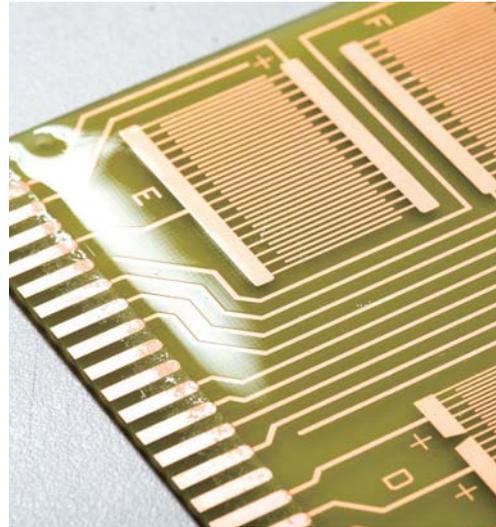
품질 검사

*베이스 컴파운드는 실리콘 검(Gum) 투입, 실리카/특성 향상제 투입, 교반, 가열 교반, 냉각/배출, 필터링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제조



RTV(Room Temperature Vulcanization)

RTV(Room Temperature Vulcanization, 상온경화형 실리콘고무)는 상온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고체(탄성체)로 경화하는 고무다. 내후성, 내열성, 내한성이 높으며 방수, 기밀성, 접착성, 방열성, 전기적 특성도 뛰어나 전자레인지 도어 실링제, 충격흡수제, 실링제, LED포팅제, 방열재료 등의 각종 전기전자산업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죽2공장에서 생산하는 RTV 제품은 태양광 프레임 실링제, 전자레인지 도어 실링제, 인덕션 실링제, 전선코팅제, PCB기판코팅제, LED 포팅제, 전원공급장치 포팅제, 방열접착제, 방열그리스 등이 있다. 또한 고순도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베이스를 전제로 고객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이 요구되는 광학용 OCA(Optically Clear Adhesive)용 점착제, 반도체 Die Carrier Film 재료, 자동차 전장용 방열접착제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IT기술 발달과 더불어 전기차를 비롯한 자율자동차, 첨단 기술 반영 전자 제품이 증가하면서 접착력이 우수하며 내후성이 뛰어난 RTV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절감 추세와 맞물려 LED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내열성, 고휘도, 고출력에 적합한 RTV 소재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활발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판매증대 및 이익증가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KCC는 모멘티브社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과 KCC 생산, 기술, 영업 대응 능력등 글로벌 톱 수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실리콘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 할 것이다. 또한 모멘티브社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5G 사회기반시설과 반도체 등 메가트렌드 시너지 아이템을 통한 제품 세계화로 실리콘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RTV 생산과정



액상원료 투입



분말원료 투입



고온 감압
분산 공정



기타 첨가제 및
가교제 투입 후
감압 교반



촉매 투입
교반 공정



품질 검사

현장에서 질문하고 공정개선으로 답하다

대죽2공장 실리콘제품생산팀 안병일 반장



안주보다는 도전과 개척정신을 실행하는 이들에 의해 역사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EMC(Epoxy Molding Compound) 생산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다졌던 안병일 반장은 대죽2공장에서도 다시 실리콘제품의 공정 개선과 생산 향상에 기여했다. 익숙한 공정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답을 찾아낸 그의 수색 여정을 따라가본다.

대화과 소통으로 생산성 향상

“자동차부품, 전자전자부품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LSR¹⁾, RTV²⁾ 실리콘 제품의 전체 생산 일정을 관리하며 기술 파트와 함께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죽2공장 실리콘제품생산팀에서 실리콘 2차제품의 처음과 끝까지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세심히 살피는 안병일 반장.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실리콘 전문가였던 건 아니다. 87년 KCC 수원공장으로 입사한 그는 EMC 생산 초창기부터 참여해 기계를 세팅하고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까지 단단히 초석을 닦았다.

실리콘과의 인연은 2009년도에 대죽3공장으로 오면서 시작되었다. 실리콘 사업의 전망을 발견하고 전환을 결심했지만 생소한 분야에서 새로 시작하는 만큼,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해 설비를 운영하고 제품의 특성과 원료 메카니즘 등을 파악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그렇게 폴리실리콘 사업과 HCE³⁾ 생산부문을 거쳐 LSR 생산부문으로 합류했다.

“LSR 생산력 향상을 위해 HCE 생산파트에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데 생산이 못 맞추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현장과 사무실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면서 생산량 향상에 집중했죠.”

그는 무엇보다 소통을 우선했다. 대화를 통해 작업자들이 더 활력 넘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부서와 의견을 나누며 공정시간 단축과 배합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조 과정에 ‘냉각’ 공정에서 170도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다운시키는데 그때 최적 RPM(원료를 저어주는 속도)을 찾았죠. 이전에는 저속과 고속의 배율을 50:50으로 냉각을 시켰을 때는 고속 RPM 설비가 저하되는 거예요. 고속저속 RPM을 조정해 최적 RPM을 찾으니 냉각시간도 단축되고 공정마다 평균 30분이 단축되었습니다.”

시간 단축이 곧 공정단축이 되었고, 150톤도 어렵던 생산량을 220톤까지 증대할 수 있었다. 원료 선보정(미리 투입)을 통해 배합 시간을 단축하고, 원료 드럼통을 기울여 점도가 높은 원료를 모두 회수하고, 버려지는 용기를 과포 보관용으로 재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원료 이송 과정에서 사용되던 확관 필터 개선으로 원료 손실을 줄이고 수율향상에 의한 원가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1) LSR : Liquid Silicone Rubber, 액상 실리콘 고무
2) RTV : Room Temperature Vulcanization, 상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
3) HCE : Heat Cured Elastomer, HTV(High Temperature Vulcanization (고온경화용 실리콘고무)라고도 한다.

공정 개선의 시작점 “왜?”

놀랍게도 이 모든 개선작업들은 불과 2년여 만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놀라운 개선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저는 직원들에게 늘 “왜?”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작업을 왜 해야해? 이 공구를 왜 써야해?’ 그렇게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질문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하고 일하면 뭘 자꾸 해보려고 하니깐 피곤하다고들 해요. 하하. 그런데 좀 더 편하게 개선하고 안전해지고 생산성도 올리면 모두가 좋잖아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항상 직원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설비도 직접 운영해보며 기술부서와 함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낸다. 또한 해마다 12월이면 직원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내년에 뭘 개선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적게 한다. 모두가 생각을 모으면 혼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견되곤 한다.

이처럼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실천을 통해 2015년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분임조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이렇게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이라는 안병일 반장. 편안하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왜’를 외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 노력이 바로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생산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빨리 모두 정상화되고 생산량이 예전처럼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생산해도 수요에 못 미칠 때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33년간 근무하며 청춘과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 온 KCC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안병일 반장. 그의 희망이 앞으로의 또다른 개선과 발전에도 등불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생산설비를 꼼꼼히 점검하는 안병일 반장



안양 KCC스위첸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1번지
- 공사기간 : 2018년 10월 ~ 2021년 6월(32개월)
- 공사내용 : 지하 4층 ~ 지상 25층(총 4개동, 공동주택 1개동 138세대, 오피스텔 3개동 307실)
- 발 주 처 : 비전타운



구도심을 되살리는 명품 주상복합단지

안양 KCC 스위첸 신축공사 현장

안양시의 구도심인 만안구에 명품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 지역에 불고 있는 재개발 움직임의 신호탄 격인 안양 KCC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 길 건너에 들어서는 행정업무복합타운과 함께 안양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이곳 공사 현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KCC스위첸에서 누리는 '원스톱 주거환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정착되면서 주상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편리한 기반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신 복합타운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꿈 같은 원스톱 주거환경을 실현시킨 곳이 있다. 바로 안양 KCC스위첸이다.

안양 KCC스위첸은 아파트·오피스텔·근린 생활시설이 한데 모인 주상복합단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4개동에 총 445세대가 입주한다.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안양역을 양옆에 끼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로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안양 KCC스위첸과 면을 댈 도로 맞은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56,309㎡(약17,000평) 규모의 대규모 행정업무복합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안양시는 부지 중 절반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추후 준공될 경우에는 더욱 다채롭고 편리한 첨단 편의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 KCC스위첸의 가치와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임은 물론이다.



(왼쪽부터) 연규상 대리, 류제성 과장, 박기진 사원, 여선엽 사원, 최철중 부장, 임동원 부장, 송준환 차장, 박지현 대리, 김만석 대리, 최상호 대리, 이유상 과장, 임정영 사원, 한윤구 사원, 김종백 사원, 양치용 차장, 장영재 대리

도전과 실행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다

안양 KCC스위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활약 중인 최철중 소장 과 직원 18명은 명품 주거 및 상업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과제는 ‘공사 여건’이었다. 언뜻 생각하면 도심지에서의 공사가 한결 수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주변이 빼곡하게 개발돼 있어 트럭이 오가기 쉽지 않고, 자재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많다. 특히 안양 KCC스위첸 현장은 도보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비슷한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공사 중인 데다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공사 현장 잔·출입로를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이에 최 소장과 직원들은 양쪽 단지 공사를 맡은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잔·출입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또한 치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출입 차량과 자재가 영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으며,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공법도 도입했다. 먼저 흙막이 공사 시 H형 강관 대신 사각상관을 활용하는 ‘PS-공법’을 적용했다.

PS-공법을 활용하면 H형 강관을 사용할 때보다 더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설치 및 해체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골조공사 시 재래식 거푸집을 활용한 보 공사 대신 강관을 사용한 ‘DH빔공법’도 도입했다. 재래식 거푸집은 설치와 해체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DH빔공법을 쓰면 강관 거푸집을 공장에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해체 과정도 필요치 않아 시간과 자원이 절약되고 현장 안전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안양 KCC스위첸 현장은 이렇듯 다각적인 도전과 실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굳은 각오로 명품을 만들어 가다

주상복합건물은 일반적으로 아래쪽 상업시설은 기동식 구조로, 위쪽 주거시설은 벽식 구조로 짓는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을 잇는 지점에 접점이 되는 층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트랜스퍼(Transfer)층이다. 트랜스퍼층에는 주거시설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커다란 보가 설치되는데, 안양 KCC스위



설계 수치대로 외관 석재가 적용됐는지 측정하는 현장의 모습

첸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의 높이가 2미터를 넘어 골조공사 시 여러 어려움이 따랐지만, 공정 관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진행된 덕분에 문제없이 주거시설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최철중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안양 KCC스위첸에는 스위첸의 리뉴얼 디자인인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이 적용된다. 기본 콘셉트인 ‘Basic & Unique’를 바탕으로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외관·출입구·로비 등 주거환경 곳곳에 반영하며, 특히 ‘스위첸 패턴’을 통해 KCC스위첸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골조공사 후반부에 돌입한 안양 KCC스위첸은 내년 6월 준공을 향해 순항 중이다. 최철중 소장 과 직원들은 안양 KCC스위첸이 안양시 만안구를 대표하는 ‘주상복합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 공정 모든 힘을 다 쏟겠다는 각오다. 이들을 통해 완성될 명품 주상복합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선크림으로 피부 관리합시다!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햇볕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지만 되도록 피하고픈 존재다. 태양이 내뿜는 강한 자외선이 피부를 검게 만들고, 온열화상을 일으키며, 주름·기미·검버섯 등을 일으켜 피부를 노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외출 시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라고 조언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안양 KCC스위첸 직원들에게는 선크림을 챙길 시간조차 아쉽다. 최철중 소장이 직접 직원들의 선크림을 챙기고 나선 이유다.

“여름철 지났다고 방심하다가 가을, 겨울 햇볕에 얼굴이 금방 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부 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 소장의 세심함이 가을 햇살처럼 직원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든다.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을 준비했으니, 이곳 현장을 지키는 내내 햇볕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하다.





도담도담 자라는 우리 아이를 위해

안전한 바닥재 숲도담

무엇보다 안전이 주목받는 시대. 생활에 가장 밀접한 바닥재도 안전 제일 제품이 대세로 떠올랐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KCC글라스의 '숲도담'이다.

우리 아이와 반려동물이 '도담도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숲도담'을 살펴본다.



아이리쉬 오크 NR32-4368

우리 아이·반려동물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KCC글라스가 가정용 바닥재 'KCC글라스 숲도담 3.2/2.7'을 출시했다.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도담도담'이란 단어에서 따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숲도담'이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바로 '안전'이다.

숲도담 바닥재 위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각은 우수한 보행감이다. 논슬립(Non-Slip·미끄럼 방지) 표면 코팅으로 보다 안전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고탄력 쿠션층은 딱딱한 대리석, 폴리싱 타일과 달리 뒹 때에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환경마크, HB마크, 아토피 안심마크 등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을 보유해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가족 모두를 보호해주는 제품이기도 하다.

특히 숲도담은 어린 아이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전도 고려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PVC 바닥재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제품인증(PS인증, Pet Product Safety Certification)'을 취득하였는데, 한국애견협회와 국가 공인시험기관 KOTIT시험연구원의 까다로운 제품 품질 검사, 안전 기준을 통과해 반려동물 안전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은 바닥 표면이 미끄럽거나 딱딱한 경우 관절에 무리가 가 슬개골 탈구 등 관절 질환에 치명적인데, 숲도담은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감으로 발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강점이 있다.



티그레마블 화이트 NR32-4881



파라디소 화이트 NR32-4901

더불어 숲도담은 청소가 쉽고 위생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주재료가 목재인 마루는 반려동물의 대소변 등으로 오염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숲도담은 PVC시트 바닥재 특성상 이음매와 틈새가 적기 때문에 바닥 틈새로 오염물질이 바로 스며들지 않아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다. 표면 코팅 층에는 편백 나무 오일까지 첨가돼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눈길

숲도담은 제품 두께를 2.7mm와 3.2mm, 두 가지로 나누어 출시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디자인 취향이 다양화된 가운데, 대중 선호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2.7mm는 7개, 3.2mm는 11개 총 18개의 디자인 패턴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현실감 있는 패턴 표현을 위해 바닥재의 인쇄 패턴과 표면 엠보싱을 일치시켜 천연 소재의 질감과 특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인 '동조엠보' 적용을 확대했다.

우드 패턴 디자인으로는 '와이드 디자인'을 적용한 ▲그랜드 오크 화이트 ▲그랜드 오크 브라운 등이 있어 넓고 긴 사이즈의 원목마루가 주는 고급스러움으로 시원한 공간감을 선사한다. 또한 마블과 스톤 패턴으로는 ▲티그레마블 화이트 ▲유레카 화이트 ▲파라디소 화이트 ▲피에트라 블랙 ▲크레마 아이보리 등 5종의 개성 있는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저격한다. 기존의 익숙했던 우드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전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한 손에 다 잡은 숲도담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는 가운데, KCC글라스는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제품의 출시를 다짐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 트렌드를 빠르게 읽으며 더 높게 성장하고 있는 KCC글라스의 다음 행보도 기대해 본다.

*도담도담 : [부사]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

품질분임조
경진대회편

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클린 분임조

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클린 분임조의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과제는 '석고보드 3호기 믹서(MIXER) 개선으로 응고석고 부동 방지'이다. 천연석고 사용비율이 늘어나면서 석고보드 생산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던 응고석고 부동 증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들의 사연을 카툰으로 만나본다.

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클린 분임조

'세계 최대 석고보드 생산공장' 대죽1공장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면서도 더 나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선두에서 있는 대죽1공장 석고보드생산부 클린 분임조는 석고보드 3호기 믹서 개선을 통해, 대죽1공장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기여하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은상을 수상하였다.

출연



팀원
김현창 반장



팀원
이성재 반장



리더
박춘석 주임



팀원
이왕희 사원



팀원
김도환 사원



염성정



이수빈



신준오



주종필



주한감



정인중



유길현



유성복



신기모



김낙민



조병만



전영필



김영대



오동욱



안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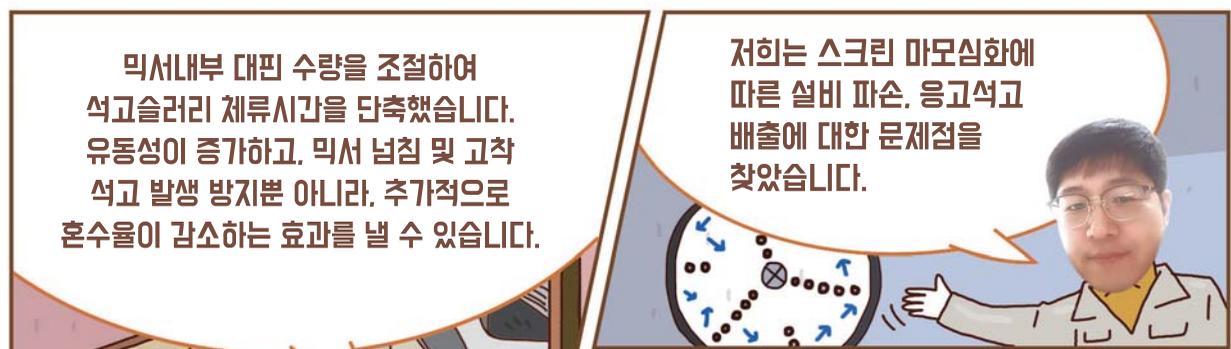


이정규



진성운





맡은 자리의 주인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대구영업소

대구영업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고 있다. 영업소의 행보에 힘을 실었던 것은 바로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마음가짐과 영업을 향한 열정. 오늘도 지치지 않고 행동하는 대구영업소의 하루를 들여다 봤다.



대구영업소장
김학경 부장

대구영업소는 1962년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구영업소로 개소한 이후, KCC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왔다.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사다난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KCC 영업의 주춧돌 중 하나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는 전통적으로 유통시장 전반기가 활성화 된 곳이다. 도심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인접한 구미 물류센터에서의 물류 이동이 수월하고, 대도시로서 건설,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 전자재, 도료 등 KCC의 제품이 다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오랜 시간 꾸준한 실적을 올렸던 대구영업소이지만, 올 봄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번지면서 영업 활동에 비상등이 켜졌다. 확진자가 급등하자 대구 지역 폐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 영업에 제약이 생긴 건 당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영업소 구성원들은 '원마인드(One Mind)'로 위기를 극복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대구영업소장 김학경 부장을 중심으로 '수평적 소통을 통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슬로건 삼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쳤다. 지난 3월 KCC 최초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활동에 제약이 있는 인원의 업무를 서로 나누면서 배려와 소통을 생활화 했다. 메신저를 통한 영업소 내 비대면 소통에 주력하여 각 과마다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해, 이슈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실시하였고, 유선을 이용해 고객과 꾸준히 컨택하면서 최악의 환경에서도 선방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현재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왼쪽부터) 황해웅 차장, 예병진 사원, 이동규 사원, 이민서 사원, 이은지 사원



(왼쪽부터) 전중호 과장, 김두현 사원, 송재현 과장, 장현수 과장, 김민수 사원, 임대규 대리, 박주하 사원, 이광민 사원, 주인엽 과장



(왼쪽부터) 이훈재 대리, 안귀대 차장, 이종혁 사원, 김영균 차장, 김진경 과장

면서 5월부터 정상 출근해 다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영업소 직원들은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준 지자체와 대구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대구영업소 내의 영업팀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 팀이 이룬 성과를 살펴보면, 대구영업소의 매출 비중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건재과는 열일의 선두에 서있다. 올해도 주요 상품인 글라스울 매출이 건재한 가운데 적극적인 거래처 수주 활동 지원을 통해 창호 매출이 크게 신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건축용도료와 플랜트도료를 주력으로 영업하고 있는 도료과에서는 올해 영업 활동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신규 거래선 개척에 다수 성공하여 앞으로 판매 성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켜다. 기존 거래선 유지에 그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이룬 성과로써, 늘 전진하는 대구영업소 구성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리피니쉬 도료도 내년 환경규제 강화에 맞춰 수성 도료인 수믹스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자동차 도료 분야도 기존 거래선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과는 영업사원들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면서 대내외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2월부터 지금까지 영업소 방역 등 구성원들이 방역 지침 가이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염병으로 부침을 겪은 상황에서도 대구영업소가 맹활약할 수 있던 건 이러한 관리과의 노력 덕이었다. 이처럼 대구영업소는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대구영업소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수행한다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전사 영업소에 위기극복 노하우를 전달했다.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자'는 KCC의 사시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내 자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대구영업소의 자세가 KCC 전체에 큰 울림을 전한다. 앞으로도 KCC 영업의 큰 축으로 작동할 대구영업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pisode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업

도료과 주인업 과장입니다. 저는 부산영업소를 거쳐 대구영업소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3년차가 됐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작은 진심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영업에 성공했던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올해의 일입니다. 10년 이상 경쟁사의 제품만 사용해 온 도장 전문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개 한 메이커를 오래 사용하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타 메이커로 잘 바꾸지 않지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 내 아파트 재도장 시기에 열심히 판촉해 기어코 수주를 해냈지만, 도장업체에서는 KCC도료 사용에 난색을 표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지요. 아무래도 업체 대표가 연세도 많으시고, 손에 익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 보니 생긴 일이었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 매일 같이 도장 현장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 주 간 대면하면서 친밀해지기는 했지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영업 마인드가 아니라, '감성'으로 접근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업체 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배냇저고리와 아이 모자를 선물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었지만, 저의 진심어린 마음을 읽으셨는지, 결국 마음을 여시더군요. 아파트 재도장 건의 납품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KCC 제품만 사용하는 '단골'이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작정 대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객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관심있게 체크하고 공략해야 된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의 '이득'을 내기 위한 꾸며진 배려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지요.



“작은 진심이 성과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큰 성과를 낳다

건재과 김진경 과장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이뤄낸 영업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시공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수주한 신축 오피스텔 현장이 있어, 판촉을 하며 확인 결과 경쟁사 스펙으로 정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스펙은 우리나라 고층건물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사양으로 해외에선 목조나 단층건물 위주로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KCC 스펙으로 변경시 원가절감, 안정성 등 여러부분에서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는에도 건설사와 시공업체에서는 기존 스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지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경쟁사 본사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해당 제품을 사용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주저하는 경쟁사 담당자의 목소리에 더 확신을 갖고 다시 시공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제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쟁사 스펙으로 적용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다음 현장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제 모습에 다소 질렸는지, 시공업체 담당자가 “이제 그만 하세요”라며 제 손을 밀치더군요. 밀치는 손을 두손으로 꼭 마주잡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득한 결과, 결국 해당 현장에 KCC 석고보드로 전량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업체에서 KCC의 점유율이 20%에서 80%까지 증가했고, 부산지역 타 건설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부산 동구의 마리나 G7 신축현장에도 KCC제품으로 전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끝까지 해보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중에 ‘할 수 있었는데...’라며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한 번 더 해보는 게 낫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고객들에게 ‘KCC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Event

KCC 칭찬 릴레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도료과

대구영업소 도료과가 초대되었습니다



KCC

이번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면서 대구영업소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도료과입니다~ 지금부터 칭찬릴레이를 시작해볼까요?

주인업 과장



저는 도료과의 중심을 잡아주는 임대규 대리를 칭찬합니다. 선후배간의 가교역할을 해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인간 비타민! 늘 긍정적인 임대리를 칭찬합니다.

임대규 대리



감사합니다. ^^ 저는 이어서 김민수 사원을 칭찬합니다. 생산, 납기, 현장스케줄 관리 등 도료 업무 중에서도 챙길 게 많은 시공업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사원



저는 도료과의 김두현 사원을 칭찬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좋아요. 차분하게, 꼼꼼하게 업무 처리 하는 점은 제가 꼭 배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니 제가 많이 의지합니다. 힘들더라도 옆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같이 화이팅해요!!

김두현 사원



저는 늘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장현수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져 자동차도료 사업부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밝고 명랑한 영업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칭찬합니다!

장현수 과장



저는 이광민 사원을 칭찬하고 싶네요. 어려운 업무지시에도 불만 없이 따라줘서 고맙워요.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면 회사에서도 인정 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광민 사원



저는 주인업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술선수범'의 아이콘으로 늘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지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책임감은 늘 제게 감명을 줍니다. 저도 과장님처럼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KCC



칭찬 한 마디마다 대구영업소의 훈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네요.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늘 향기나는 영업소의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가을에 꼭 어울리는 게 바로 따뜻한 꽃차이지요. 적당한 온도의 물에 꽃잎 몇 개를 넣어 우려면, 달콤한 향기가 우리의 기분도 좋게 합니다. 서로 선물로 나눈 이 꽃차의 향기처럼 대구영업소도 늘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온기도 UP

최근 기업경영에서 '기업과 사회의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성장'에 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CC도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사회공헌 활동 등 인정

지난 10월 16일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KCC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 (KRCA : Korean Readers' Choice Awards)' 상을 6년 연속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 Korean Sustainability Index)' 건축자재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KRCA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글로벌 표준인 GRI Standard를 기반으로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다. 또한 KSI는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들 상의 동시 수상은 당사의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의 지속적인 브랜드화

KCC의 사회공헌 활동은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단순한 성금기탁 등의 일회성 활동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당사에서 생산하는 도료, 창호, 천장재 등의 각종 건축자재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당사의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사회공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새뜰마을' 사업, 서울시와 함께하는 '온(溫)동네 숲으로', 서초구와 함께하는 '반딧불 하우스', 서초소방서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대표적이다. 특히, KCC 임직원들로 구성된 'KCC 행복나눔봉사단'은 KCC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전국의 각지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전국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새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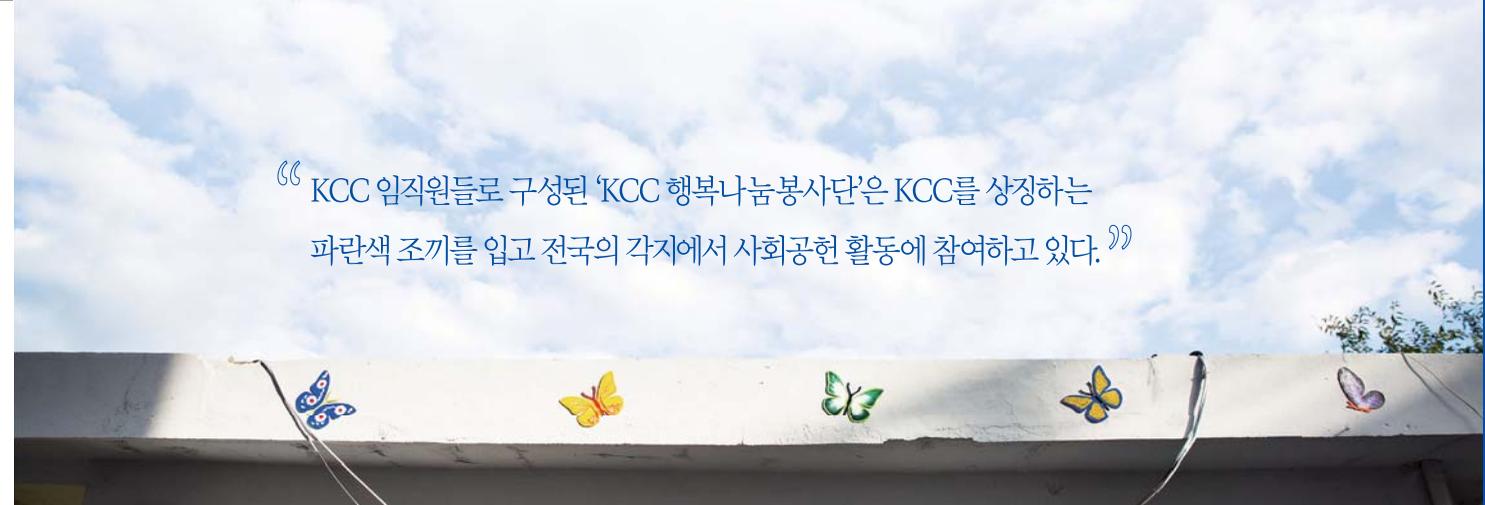
KCC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전국단위의 브랜드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비타트 등과 함께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이 있다. 흔히 달동네, 쪽방촌이라 불리는 주거 취약 지역의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를 지원하는 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KCC는 자사의 고단열 창호, 페인트를 비롯한 보온 단열재, 바닥재 등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를 지원하여 그 힘을 보태고 있다.

구분	사업지역	지원 세대수
2018년	전북 전주, 강원 강릉, 경북 영주	105
2019년	부산 동구, 인천 동구, 경북 안동, 전남 여수, 경기 의정부	151
2020년	경북 영주, 경기 평택, 부산 진구, 전북 전주, 충남 서천, 충남 청양	200(예정)



2019년 새뜰마을 사업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 KCC 임직원들로 구성된 'KCC 행복나눔봉사단'은 KCC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전국의 각지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2019년 '온동네 숲으로' 삼태기마을은 마을탐방객들에게 명소로 자리잡음.



2019년 '온동네 숲으로' 삼태기마을 신입사원 봉사활동



2020년 9월 '온동네 숲으로' 우리마을 벽화 봉사활동

▶서울시와 함께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 '온(溫)동네 숲으로'

KCC는 2018년 11월부터 서울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 4자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저층주거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내 열악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KCC만의 다양한 건축자재를 사업에 지원하면서 노후주택 개선과 건물 에너지 효율 상승으로 재해예방과 냉난방비절약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페인트를 이용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KCC는 서울시의 '2019 온동네 성과공유 한마당'에서 주거환경개선 공로 서울시장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구분	사업지역	수행활동
2018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산골마을	벽화그리기
2019년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벽화그리기, 집수리,공공시설물개선
2020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벽화그리기, 집수리,공공시설물개선

▶서초구와 함께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딧불 하우스'

반딧불하우스 사업은 서초구 관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를 위한 건축자재 현물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반딧불하우스 사업은 혜택이 필요한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관련기관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을 KCC의 고기능성 자재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9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분	사업지역	지원 가구수
2018년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개선, 복지관 시설 외	29가구
2019년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아동/청소년 방과후교육 지원	24가구
2020년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개선	44가구(예정)



2019년 반딧불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서초소방서와 함께하는 화재예방 활동

최근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지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KCC는 서초소방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화기 도색, 소화전 개폐기 보급, 주택용 소화기 및 경보기 구매와 소화전 사용안내 스티커 제작 등 화재예방활동에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7월 강남대로 소화전 디자인 페인팅 작업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민관사회공헌 워크숍 개최

KC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의 발전방향을 위한 민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KCC의 각 사업장 사회공헌 책임 임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 담당공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모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별 사례공유를 통하여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하여 각 사업장 별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기업과 지역사회 간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CC만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KCC의 사회공헌을 지휘하고 있는 총무인사총괄 심재국 상무는 "KCC가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핵심은 '기업활동의 기

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KCC는 밖으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업(業)과 연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이며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안으로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공헌봉사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들께서는 KCC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봉사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한잔 1,000원의 기부로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기부금과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회사에서 기부금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2019년 5월 지자체 공무원 및 사업장 담당자 약 40여명 참석 사회공헌 워크숍



We Are Strong! 우승을 향해 첫 발을 댄 KCC EGIS



2020-2021 프로농구 개막

KCC EGIS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2020-2021 시즌 프로농구가 개막한 것.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지만,
경기장은 KCC EGIS 선수단의 투지로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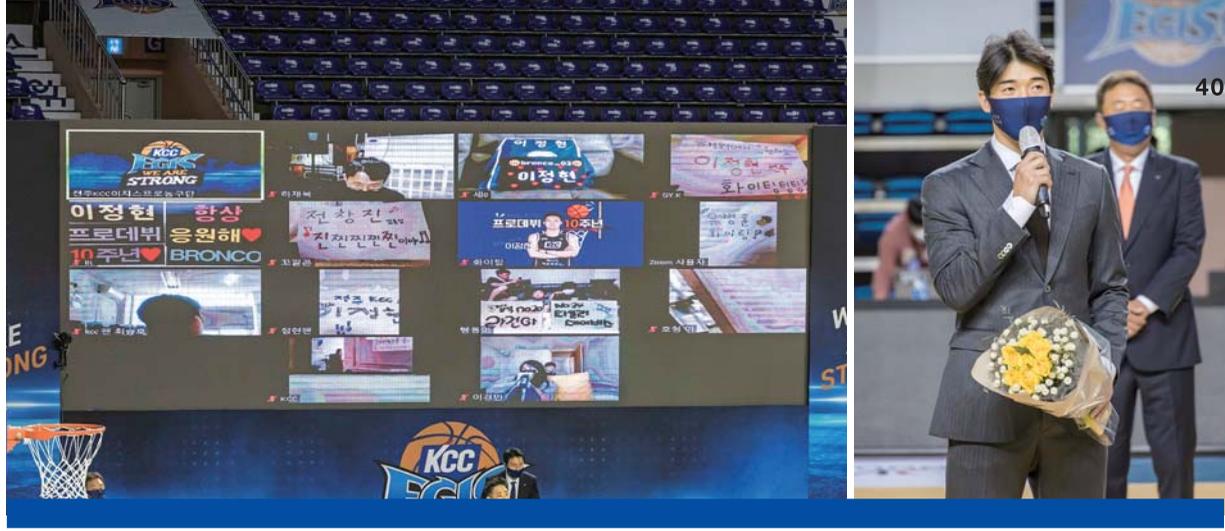
‘언택트’로 나는 설렘과 감동

갑작스러운 시즌 종료로 아쉬움이 컸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전주실내체육관에 활기가 들어왔다. 지난 10월 10일, KCC 이지스의 2020-2021 시즌 개막전이 열린 것이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번 시즌의 슬로건 ‘WE ARE STRONG’이 눈에 들어왔다. 문장 그대로, 올 시즌 KCC 이지스는 막강한 전력을 유감없이 뽐내게 될 터였다.

KCC 이지스는 비시즌 기간 동안 전력 보강과 팀워크 향상에 힘썼다. 가드 김지완과 유병훈을 영입해 팀에 속도를 더했고, 김창모, 유성호를 영입해 다소 부족한 파워포워드와 센터 자리를 보강했다. 더불어 NBA와 G리그에서 활약한 실력과 센터 타일러 데이비스를 영입해 빅맨에 대한 갈증을 해결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영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고른 평가다.

전주실내체육관은 선수들이 1차 위밍업에 나서면서 서서히 달궈졌다. 경기장 바로 옆에 세워진 커다란 스크린 두 개가 눈길을 끌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무관중 개막전이 결정되자, 구단에서 즉시 언택트(Untact)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개최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거대한 화면을 통해 경기 내내 전국 곳곳에 있는 팬들의 응원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경기장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한편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된 신명호의 은퇴식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입단 후 지난 시즌까지 14년 동안 KCC 이지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명호는, 올 시즌부터 팀의 코치로 활약하게 된다. 가족과 선수들의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긴 신명호는 “앞으로 코치로서 선수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겠다”며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출사표를 던졌다.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이정현은 선수단을 대표해 꽃다발을 건네며 그의 건승을 기원했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경기의 재미를 더했다

이제 선수가 아닌 코치로 활약할 신명호 코치 경기 시작 전 은퇴식 모습

눈을 땔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

2차 워밍업 시간에는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됐다. 응원단인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몸을 푸는 중간중간 선수들이 이에 직접 답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정현·송교창·김지완 등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차례대로 화면에 나타나자, 채팅 올라가는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송교창은 팬들의 성원에 우승으로 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고, 김지완과 이정현은 팀이 우승하면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밝히며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오자 체육관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LG 세이커스를 상대하게 될 이날의 '베스트 5'는 유병훈·송교창·이정현·김지완·라건아였다. KCC 이지스는 1쿼터에 들어서자마자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라건아가 2점 슈트와 자유투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경기 초반 공수 전환이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자, LG가 수세에 몰렸다. 특히 상대를 당황케 하는 강력한 압박 수비가 일품이었다. 1쿼터 종료를 2분 남기고 코트에 들어선 새로운 빅맨 타일러 데이비스는 강력한 개인 능력을 뽐냈다. 덕분에 22 대 13으로 1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반면 2쿼터는 다소 아쉬웠다. 라건아의 이른 3반칙으로 1쿼터에 이어 타일러 데이비스가 나섰는데, 팀에 늦게 합류했던 탓에 다른 선수들과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팀 밸런스가 깨졌고, 상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2쿼터 중반까지 2득점에 머무른 KCC는 이후 LG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었지락뒤지락했지만, 조금씩 기세 싸움에서 밀리며 점수 차가 벌어졌다. 이정현의 패스를 받은 타일러 데이비스가 3점 슈트를 터트리는데 등 분전했지만, 따라잡기 쉽지 않았다. 결국 30 대 40으로 리드를 뺏긴 채 2쿼터가 종료됐다.

개막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다.



우승을 향한 의미 있는 도움닫기

답답한 분위기는 3쿼터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때 주장 이정현이 나섰다. 35 대 45로 뒤져 있던 시점에서 3점포를 3개 연속 터트리며 가라앉았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 과연 에이스다운 면모였다. 이후 김지완이 3점 슈트를 성공시켰고, 라건아가 골밑슛에 이른 바스켓 곳으로 3점을 더하며 LG를 바짝 따라붙였다. 송교창이 3점을 넣으며 1점차 역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 팀의 3점 슈트가 들어가면서 추격의 고삐가 살짝 풀어졌고, 53 대 58로 3쿼터를 마쳤다.

KCC는 4쿼터 들어서자마자 공격에 속도를 붙였다. 정창영의 3점으로 2점차까지 따라붙은 뒤, 빠른 공수 전환으로 경기 분위기를 조금씩 이끌었다. LG도 3점으로 도망가는 등 만만치 않게 반격했다. 4쿼터 중반을 막 지났을 무렵, 라건아의 자유투 2점과 송교창의 속공을 앞세운 KCC는 이정현의 네 번째 3점 슈트로 67 대 67,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경기 막판 LG가 연이어 공격에 성공하며 점수를 벌렸을 때도 끈질기게 추격하며 KCC 특유의 끈질긴 농구를 선보였지만, 경기는 73 대 78로 끝나고 말았다. 무척이나 아쉬운 5점 차 패배였다.

그럼에도 전창진 감독과 선수단은 서로를 독려했다. 종료 후 벤치에 모여 경기를 되짚으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전술을 수정했다. 그래서일까, KCC는 다음날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92 대 79로 대승하며 2020-2021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개막전 패배를 전화위복 삼아 곧바로 승리를 만들어 낸 KCC 이지스. 그 저력과 집념이 이번 시즌 우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섯 번째 우승을 향한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작전타임 중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전창진 감독



멋진 덩크를 선보인 라건아 선수

경기가 끝날 때까지 투혼을 발휘한 주장 이정현 선수



건강 & 학습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숲으로홈앤스테인으로 '우리 아이 책상 만들기'

부모님에게 가장 우선은 바로 아이의 건강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료와 아이 몸에 꼭 맞는 DIY 책상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똑똑한' 우리 아이를 위해 오늘은 페인트붓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우리 아이 책상 만들기 꿀템!

숲으로홈앤스테인

숲으로홈앤스테인은 친환경 목재용 수성스테인이다. 목재에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스러운 무늬결과 질감을 살리고, 목재를 보호하는 발수, 방부, 고내후성 등의 기능이 우수하다. 더불어 HB마크 최우수 등급, 환경표지인증서까지 보유해 인체에 무해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제품이다. 건조가 빠르고 냄새가 적어 누구나 쉽게 DIY용 목재, 인테리어 목재 등에 도장할 수 있다.



쉽게 따라하는 우리 아이 책상 만들기

준비물 : 숲으로홈앤스테인, 숲으로홈앤바니쉬, 사포, 수성붓, 일반붓, 롤러, 스펀지, 장갑



STEP1 제품을 꼼꼼하게 사포질하여 먼지나 얼룩, 곰팡이 등을 제거합니다.



STEP2 숲으로홈앤스테인을 붓과 롤러를 이용해 얇게 바릅니다.



STEP3 의자도 동일하게 붓과 롤러, 스펀지를 이용해 얇게 바릅니다.



STEP4 30분 정도 말린 후 좀 더 진한 컬러를 원한다면 한 번 더 덧칠해주세요.



STEP5 숲으로홈앤스테인을 바른 후 2시간 정도 말려줍니다.



STEP6 건조 후 숲으로홈앤바니쉬를 발라 마무리합니다.



STEP7 숲으로홈앤바니쉬가 마른 후 가구를 조립해 주면, 원목 느낌은 그대로~ 컬러로 분위기는 산뜻한 우리 아이 책상 완성~!



영상으로 배우고 싶다면?

QR코드로 YOUTUBE에 들어가 보세요



TIP! 셀프페인팅 전 확인해야 할 '페인트 브러쉬 별 용도'



평붓 평붓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폭에 따라 벽면부터 가구까지 다양하게 칠할 수 있다. 뽀뽀하고 거친 모는 '수성페인트용', 가늘고 부드러운 모는 '유성페인트용'이다.

롤러 넓은 면적을 손쉽게 칠할 땐 롤러가 제격! 고르게 페인트를 칠하려면 W자 혹은 X자를 그리며 칠하고 남은 부위는 위에서부터 옆으로 퍼주면서 바르는 게 좋다.

스폰지 스펀지붓은 털빠짐, 붓자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얇고 고르게 발리는 게 장점이다. 다만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면적이 좁아 작은 가구나 소품에 적합하다.

건강한 삶을 향한 소비 트렌드

‘안전·건강 제일 소비’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다. 감염병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사고도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트렌드도 가성비(가격에 따른 만족 추구), 가심비(심리적 만족 추구)에 이어 이젠 ‘가안비(안전성 추구)’가 주목받고 있다.

Consumption Trend



마스크가 불러온 소비효과와 ‘가안비’

지난 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약국, 편의점 등 마스크 구매처에 긴 줄이 이어졌다. 미리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마스크 대란’이라 불린 이 사건으로 소비자들은 ‘재난·위급 상황에 미리 대비하자’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격, 디자인 등 다른 요소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 ‘가안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비 형태의 변화는 통계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 옥션이 카테고리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살균 램프(110%), 초음파세척기(765%) 등 위생 관리 용품의 판매가 급상승 했다. 더불어 도어스토퍼 등 생활 안전용품(52%), 창문 잠금장치(49%), 화재감지기(41%) 등 위생 이외에도 안전 용품에 대한 관심과 판매량도 함께 상승했다. 또한 유해물질을 최소화해 실생활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키워드 검색도 포털사이트 기준 110% 이상 증가했다.

안전 소비 트렌드는 몇 해 동안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었던 ‘가심비’와 연관이 있다. 그간 소비자들의 소비 기준이었던 ‘심리적 만족’은 제품의 인지도와 주위의 평판 등 주관적인 지표로 결정되는 요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안전 사고가 잦았던 2020년엔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안전성과 위생성 등 객관적인 지표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안전 추구 소비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비해 안전 용품 출시는 물론 친환경, 위생을 극대화한 제품까지 속속 선보이고 있다.

‘가안비’ 소비 저격하는 제품들

KCC 안전한바닥재 ‘숲 도담’

KCC글라스가 최근 출시한 숲 도담은 어린아이가 탈없이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도담도담’이란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 이름처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미끄럼 방지 기능과 환경마크, HB마크, 아토피 안심마크 등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특징도 갖고 있다. 더불어 PVC시트 바닥재로 액체가 스며들지 않아 청소도 간단해 오염에도 안전하다.

LG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LG전자에서는 지난 9월 IFA 2020에서 공기청정기가 부차된 전자식 마스크 ‘LG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가운데, 해당 제품은 2개의 H13 HEPA필터로 유해물질이 마스크 속으로 침투하는 걸 방지하고, 전자 감지 센서로 호흡 알고리즘도 계산해 준다. UV LED 케이스로 세균을 박멸하고, 820mAh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 아직 판매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해외 유수의 매체들은 ‘혁신 제품’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CPD ‘휴대용 보안 안전장치’

최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피해 ‘차박’을 떠나는 이들이 늘었다. 하지만 안전,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위해 CPD 그룹에선 휴대용 보안 안전장치 캠프 플러스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휴대가 쉽고, IoT 기술을 활용한 핸드폰 연동으로 침입 경보, 일산화탄소 수치 모니터링 등 차박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해준다.

클리어원코리아 ‘핸드레일 살균기’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던 핸드레일 살균기도 각광 받고 있다. 최근 지하철역, 백화점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핸드레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제품은 국내 중소기업 클리어원코리아가 2015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올해 코로나19 특수로 국내는 물론, 영국 히드로 공항, 미국 휴스턴 공항 등 세계 45개국으로 수출하며 K-안전제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유리의 화려한 변신

투명 디스플레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전부였던 창 유리가 변신하고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수신장치를 연결해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는 '투명 디스플레이'로 말이다.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상의 영역에서, 이젠 현실로 다가온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해 집중 탐구해본다.



투명 디스플레이, 현실로 다가오다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는 20년 전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을 스크린 속에 구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미래 예측 기술, 홍채로 신원을 인식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상상력이 관객을 즐겁게 해준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건 바로 투명 디스플레이이다. 주인공 존 앤더튼(톰 크루즈)이 허공에 손을 움직여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했던 투명 디스플레이는 우리에게 신선한 비주얼 충격을 선사했다. 개봉 당시에는 영화의 배경인 2054년이나 돼야 이러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2020년 지금도 이 기술들을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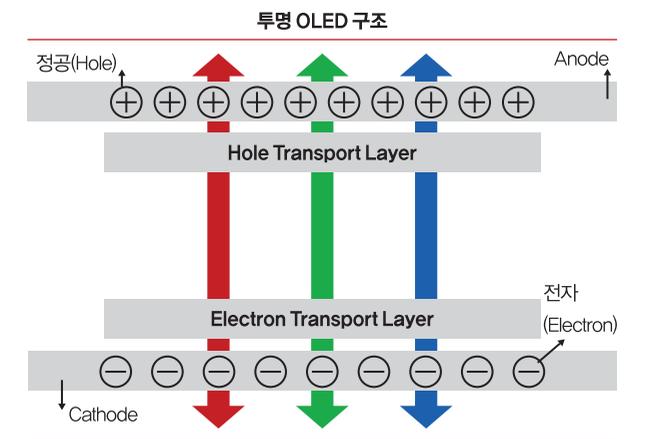
투명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투명한 화면 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뜻한다. 디스플레이 위의 콘텐츠와 유리를 통해 보이는 풍경 및 사물이 결합해 다채로운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09년 LG디스플레이가 투과율 30%의 투명 OLED, CES 2010에선 삼성전자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MP3를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가능성을 인정 받은 이후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뤄졌고,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가전제품과 자동차 HUD(Head-Up Display), 백화점 쇼윈도 등에 적용돼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자동차와 항공기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적용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마이내리티 리포트' 속 모습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같은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투사형 디스플레이 & 투과형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투사형 디스플레이는 기기에서 정보를 담은 빛을 발사해 투명한 유리에 직접 투사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초격의 기술로 1970년대부터 항공기용으로 개발돼 왔다. 최근에는 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에 빛을 투사해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HUD로 많이 쓰이고 있다. 투과율은 높지만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특성상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의 이미지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에 이용하기 수월해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 구글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등 안경이나 안구에 화면에 빛을 투사하는 HMD(Head Mount Display)도 투사형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다.

두 번째는 투과형 디스플레이이다. 빛을 직접 투사하지 않고 LCD, OLED와 같은 패널의 투과율을 높여 디스플레이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내부에 백라이트와 컬러필터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LCD 패널보다, 자체 발광하는 OLED가 투과율을 높이는 데 더 적합하여, OLED를 중심으로 한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패널 내부의 발광층을 감싸고 있는 양쪽 전극에 모두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뒤편의 사물 및 풍경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최근엔 40% 이상의 투과율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 객실 차량 창문, LG전자와 샤오미가 각각 투명 디스플레이 TV도 선보이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미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 스마트폰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돼, 앞으로는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도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엔 유리처럼 보다가 필요시에 정보를 볼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능형 윈도는 물론, 음성, 시선, 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양방향 소통 그리고 영화에서나 보던 창밖 풍경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도 곧 상용화돼 '에브리웨어 디스플레이(Everywhere Display)'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이내리티 리포트' 속 삶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투명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반 공지 이메일 작성법

글. 케빈 경(비즈니스 영어회화 표현사전) 저자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업무 이메일을 공유하는 요즘, 올바른 방법으로 메일을 작성해야 혼선을 빚지 않고 수월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번호 비즈니스 잉글리시 가이드북에선 정확한 공지 이메일을 작성하는 영어 표현을 살펴본다.

일반 공지 이메일 Tip.

한 가지 사안에 집중

이메일로 일상적인 공지를 할 때는 한 가지 주제나 사안에 집중해서 주요 내용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쓴다. 이때 관계없는 글은 생략하고 추가 주제가 있다면 별도의 이메일을 작성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추가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중요한 날짜와 장소, 이름과 연락처, 숫자 등을 모두 명시한다.



주제별 일반 공지 샘플

1. 부서 이동

전근을 할 때는 날짜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 동안의 교류에 대해 간단하게 고마움을 표하며 후임자 이름을 명시한다. 수신자와 계속 일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새 주소와 연락처도 추가한다.

Subject Transferring to Domestic Marketing
(A) Effective February 14, I am transferring to the domestic marketing team. (B) Although I'm excited about the new opportunity, I will miss working with you. (C) Cindy Lee, who is taking my place, will be contacting you soon. (D) Please extend my gratitude to everyone at Joy Corporation for their support over the years.

국내 마케팅으로 전근

저는 2월 14일 자로 국내 마케팅팀으로 옮깁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귀하와 일하던 것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Cindy Lee가 제 후임이 될 것이고 곧 연락드릴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Joy Corporation사 모든 분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사무실 이전

사무실 또는 지사를 이전하거나 개설할 때는 가급적 사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다. 새 주소와 연락처와 함께 새 장소의 영업 시작 날짜도 언급한다.

Subject New Office in Seocho
(E) We are moving our Gangnam office to a new building in Seocho-dong on March 22. (F) With the move, our office space will double, allowing us to serve you better. (G) The new address and contact numbers are as follows:

새로운 강남 사무실

당사 강남 사무실을 서초동에 있는 새로운 빌딩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 공간이 두배로 늘어나면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납품 일자 변경

불가피한 납품 일자 변경을 알릴 때는 유감의 뜻과 함께 변경되는 날짜와 이유를 언급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피한다. 맺음말에서는 상대방의 양해와 이해에 고마움을 표한다.

Subject Change in Delivery Date
(H) Regretfully, your order of September 2 will be delayed by approximately two weeks. (I) Due to the ongoing COVID-19 situation, we have been experiencing delays in receiving various raw materials from abroad. (J) Your order is now scheduled to ship on November 7. (K) W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patience and understanding.

납품 일자 변경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9월 2일 주문이 약 2주 지연될 예정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여러 원자재를 받는데 지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문하신 물품은 이제 11월 7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관대함과 이해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제별 일반 공지 패턴

(A) When과 Where 말하기

Effective 다음에 날짜를 적고 I am transferring to 뒤에 새 부서나 장소를 명시한다.

(B) 관계 언급하기

더는 함께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때 I will miss working with you 또는 I'm going to miss working with you가 적절하다.

(C) 후임자 소개하기

후임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명시하고 추후 연락할 거라고 한다. Soon 대신 더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면 더욱 좋다.

(D) 상대방 팀 언급하기

수신자의 팀이나 부서, 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할 때 다소 격식을 차려 Please extend my gratitude to~ 패턴을 쓰거나 가까운 사이라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I really enjoyed working with~ 패턴을 써도 무난하다.

(E) 사무실 이전 알리기

새로운 사무실이 어디이며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지 도입부부터 알린다.

(F) 새 사무실의 장점 말하기

With the move을 시작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번 이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장점을 조명한다.

(G) 새 연락처 명시하기

간단하게 문장 자체에 주소와 연락처를 넣어도 되지만 ~as follows: 뒤나 아래에 기재해주면 해당 정보를 읽기가 더 쉽다.

(H) 유감과 함께 지연 알리기

이쪽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I'm sorry to inform you that~(~를 알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 등의 경우 그저 유감을 표시하는 Regretfully~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

(I) 날짜가 변경되는 이유

Due to~를 사용해서 납품 일자가 변경되는 이유를 쓴다.

(J) 새 납품 일자 명시하기

배송할 수 있는 날짜가 확실하다면 Your order will be shipped on~(~에 배송됩니다)를 쓸 수도 있다.

(K) 긍정적인 맺음말

이쪽의 유감과 상대방의 관대함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다.



유용한 추가 표현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map of the new office. 첨부된 새 사무실의 약도를 참고하십시오.

We don't expect any interruptions in our service. 귀하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I will still be available to assist you. 저는 귀하를 계속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I will miss working with everyone there. 그 곳에 있는 모든 분과 일하던 것이 그리울 겁니다.

We don't foresee any more delays in the coming months.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s always, we value your business. 늘 그렇듯 귀사와의 거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듐(나트륨)

뉴스 기사에서 한 번쯤 '소듐(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을 해친다'는 말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소듐은 늘 천덕꾸러기라는 편견에 싸여 있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을 한꺼풀 벗겨내고 바라보면, 우리 삶에 이로운 소듐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주기율표>는 KCC의 주요 원소들의 이야기를 매호 시리즈로 알아보는 칼럼입니다.



주요원소 시리즈 원자 번호: 11
 기호: Na
 녹는점: 98°C
 끓는점: 883°C
 발견된 해: 1807년

11
Na
Sodium
22.990



소듐? 나트륨? 알쏭달쏭한 두 가지 이름의 비밀

일상에서는 소듐이라는 이름보다 아직 나트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초중고 교육 과정을 비롯해, 대부분의 화학용어집에서 소듐으로 표기되고 있다. 소듐과 나트륨, 두 표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선 소듐이 처음 발견된 19세기 초반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07년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용융된 수산화소듐을 전기분해시키면서 새로운 원소가 학계에 보고됐다. 소다(Soda)에서 분리해낸 원소라는 뜻으로 '소듐(Sodium)'이라고 명명됐다. 나트륨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2차 세계대전 전후였다. 당시 화학계를 주도했던 독일은 화학연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영국식 이름을 가진 원소의 개명을 시도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듐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탄산소듐 광물을 'natron'이라고 부른 데서 이름을 따와 '나트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소듐과 나트륨은 함께 쓰여왔다.

있게 하면서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포 안팎으로 수분의 이동을 조절하면서 신체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소듐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너무 많은 액체를 포함하게 돼 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섭취하면 급성위장염, 세포 내 탈수, 소화액 상실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 WHO(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소듐 섭취 권장량'(2000mg/1일)을 지키는 게 좋다.



그러나 최근 화학계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소듐' 표기를 내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소듐이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나트륨이 주로 쓰이고 소듐은 복수 표기로 인정하는 수준이었지만, 화학계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뜻으로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에 대한화학회가 '소듐'을 공식 명칭으로 지정했다.

일상생활을 넘어, 산업의 '필수템'이 되다

일반적으로 소듐은 신체에서의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만,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보통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소듐은 염화소듐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데, 매년 약 10만 톤의 순수한 소듐이 생산되고 있다.

건강한 우리 삶을 위한 소듐의 역할

자연상태의 소듐은 화합물로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소금(염화소듐 NaCl)과 소다(탄산소듐 Na₂CO₃)가 있다. 특히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닷물 1L 당 약 30g의 소금이 들어있고, 소금 무게의 39%를 소듐이 차지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소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소듐 화합물은 인간 문명이 태생하던 먼 옛날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주변에서 탄산소듐을 얻어 세정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후 남아있는 암염을 음식에 첨가해 섭취하고, 음식물을 절여 오랫동안 보존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도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에서의 소듐 활용을 살펴보면, 주로 합금 제조나 반응성이 큰 철이나 유리 등 각종 제련에 쓰이고 있다. 더불어 납에 첨가하여 경도를 증가시켜 자동차 부품에 활용하거나, 강한 환원력을 이용해 규소, 티탄, 붕소의 원료로 쓰이고, 빛을 내기 위해 가로등 같은 램프 전구 내부에 소량의 고체 나트륨이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열전도도가 높고 중성자를 잘 흡수하지 않는 특성을 활용해 칼륨과 합금 상태로써 일부 핵발전소에서 냉각제로 이용된다.

소듐이 이처럼 과거부터 활용돼 온 것은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약 100g의 소듐이 있는데, 그 양은 미미하지만 세포가 신경 신호를 전달할 수

이처럼 소듐이 합금, 금속 제련, 환원제, 냉각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리튬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이차 전지로서 소듐 전지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톤 당 1만5000 달러에 이르는 리튬보다 100분의 1 수준인 1톤 당 150 달러로 값이 싸고, 양이온을 띠는 소듐과 음이온을 띠는 염소가 결합한 염화소듐이 리튬을 뛰어 넘는 배터리 효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할 원소, 소듐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보자.



KCC·KCC글라스,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 8개 부문 1위 수상

KCC와 KCC글라스가 10월 23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시상식에서 건축자재 관련 8개 부문에 1위로 선정됐다. 수상 부문은 KCC가 실란트, 수성도료, 유성도료, 천장재, 그라스울 5개 부문, KCC글라스가 PVC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이션 필름 3개 부문이다.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와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소비자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가 받고 있다. KCC는 KS-QEI에서 다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를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과 기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수상한 실란트 부문은 9년 연속, 수성도료 및 유성도료 부문은 6년 연속, 천장재 부문은 4년 연속, 그라스울 부문은 2년 연속 1위 수상이다. KCC글라스 역시 선진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종합 유리 및 인테리어 회사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KCC글라스는 PVC바닥재 부문에서 11년 연속, 저방사유리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데코레이션 필름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KCC글라스 비센티’가 1위 제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홍보광고팀 안상욱 대리



KCC, 사회적 책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

KCC가 10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 건축자재 분야 1위 기업 선정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KRCA: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CC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KCC는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힘쓴 결과, 올해로 지속가능보고서상 6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내실 있는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성과적 지표로서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으로도 함께 선정됐기

에 그 의미가 깊다.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업종별 애널리스트, 환경 심사원 등 414명의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협력사, 주주, 임직원 등 2만5,6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KCC가 속한 건축자재 업종의 지속가능성지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KCC는 동종 업종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KCC는 이사회의 책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나타내는 조직 거버넌스와 반부패, 공정경쟁 등을 나타내는 공정 운영관행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KCC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 KCC의 지속가능경영활동과 그 성과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GRI의 보고서 작성 원칙을 잘 준수해 실질적 독자 관점에서 내용의 신뢰성, 전달력, 완성도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지속가능보고서는 KCC 홈페이지(www.kccworld.c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홍보광고팀 김학범 과장



강남역 오피스 개발사업 신축공사 수주

KCC건설은 ‘이지스 부동산펀드 318호’에서 발주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6층~지상19층 1개동, 총 연면적 14,947평의 오피스빌딩 신축사업으로 총 도급공사비는 958억 원이다.

당 오피스빌딩은 강남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 평 이상의 프리미엄급 신축 오피스빌딩으로 강남권역 내 업무시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금회 강남역 오피스 신축공사 수주를 통해 오피스빌딩 수주 경쟁력에서도 두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CC건설 개발1부 홍문기 사원



KCC건설, 인천 항동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

KCC건설은 유진자산운용 부동산펀드에서 발주한 인천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1층~지상7층 1개동, 연면적 9,714평의 규모로 진행되는 공사의 총 도급공사비는 495억 원이다.

당 물류센터는 제2 경인고속도로 능해 IC와 인접하여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며, 인천공항과 근접하여 제반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KCC건설에서 처음 수행하는 전층 저온물류센터로서 이를 계기로 시공 기술력을 확보하여, 추후 물류센터 수주경쟁에서 당사의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CC건설 건축영업부 박인환 대리

Quiz

이번 호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셨나요? 가벼운 퀴즈를 통해 당신의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아래 QR코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대죽2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대죽2공장은 2007년 7월에 준공돼 동년 9월에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 ② 연간 살리론 모노머 7만 톤, 2차 제품은 연간 2만8천 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 ③ 2008년 ISO 9001:14001 인증, 2010년엔 IATF 16949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 ④ 안전문화 장려를 위해 안전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⑤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품 생산을 위해 원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KCC글라스의 바닥재 '숲 도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숲 도담'이란 이름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도담도담'이란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 ② 슬립 표면 코팅이 돼 있어 보행감이 우수하다.
- ③ 환경마크, HB마크, 아토피 안심마크 등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④ PVC 바닥재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제품인증(PS인증)을 취득했다.
- ⑤ 천연 소재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인 '동조오펜' 적용이 확대됐다.

3 KCC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 중 KCC가 참여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것은?

- ① 새뜰마을
- ② 온(溫)동네 숲으로
- ③ 반딧불 하우스
- ④ 강남대로 소화전 디자인 페인팅
- ⑤ 새마을 챌린지

▶ KCC 유튜브 Quiz!

KCC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콘텐츠를 보고 답해주세요!

4 지난 7월 KCC는 서초소방서와 함께 꼬마소방관 이미지를 형상화한 소화전 도색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당시 소화전 도색에 사용되었던 도료는 색상 구현력과 광택이 뛰어나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장점을 지닌 KCC () 속건형 페인트 제품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은? ()

지난 호 정답

- 1. ③
- 2. ③
- 3. 숲으로 스테인
- 4. 피셔드

지난 호 퀴즈 정답자

본사 판매관리팀	안정희 사원
안성공장 안성-생산부	이종하 사원
전주영업소 전주-관리과	곽미영 사원
울산영업소 자동차인라인영업팀	장상우 사원
대죽2공장 대죽-서무부	성현아 사원
KAC 총무팀	배정직 사원
중앙연구소 재료_합성연구	정윤섭 과장
성남영업소 남양주출장소	민경준 사원
본사 영업지원팀	박민지 사원
중앙연구소 Water-borne연구팀	이영덕 사원

국내 사업장 주재기자

본사 안상욱 대리 | 중앙연구소 구분민 사원 | 공장 가평 김인규 대리 | 김천 하태용 사원 | 대죽 송아름 대리 | 문막 장효식 대리 | 세종 홍솔기 사원 | 아산 강해리 사원 | 안성 강민중 대리 | 여주 한정훈 대리 | 여천 박재현 과장 | 영월 정경수 사원 | 울산 박우진 대리 | 전주1 권대균 과장 | 전주2공장 서승우 사원 | 전주3 강익민 사원 | 영업소 경기북부 김희은 사원 | 광주 박형서 사원 | 당진 최해진 사원 | 대구 이민서 사원 | 대전 김성하 대리 | 목포 조영관 과장 | 부산 김경훈 사원 | 성남 전성배 대리 | 수원 박예진 사원 | 순천 허경미 사원 | 울산 정민 대리 | 원주 장은비 사원 | 인천 양대선 대리 | 전주 김태경 대리 | 천안 오정균 대리 | 청주 원혜실 사원 | 포항 조재훈 사원 | 계열사 KCC글라스 박훈 과장 | KCC건설 김준석 대리 | KAC 이성엽 사원 | 금강레저 윤두한 사원

해외 사업장 주재기자

KCC BASILDON (영국) 김형욱 부장 | KCT (터키) Suna Ozgen | KCK (중국 곤산공장) Zhou Na | KCK (중국 상해영업소) Jia Li Fen | KCB (중국 북경공장) Li Juan | KCB (중국 북경영업소) Tian Juan | KCG (중국 광주공장) Qiu Heng Jin | KCG (중국 광주영업소) 한은실 | KCV (베트남) Duong Kim Ngoc Son | KCM (말레이시아) Kenneth Lee | KCS (싱가포르) 김재성 과장 | KCI (인도) A.Saravanan | KCID (인도네시아) 송성호 차장 | KCC Europe (독일) 김형욱 부장 | KCC UAE (아랍에미리트) 윤성환 차장 | KCC JAPAN (일본) 라윤미



11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QR코드 주소
http://kcc.zins.co.kr/poll.html
메일 주소
sabo@kccworld.co.kr



KCC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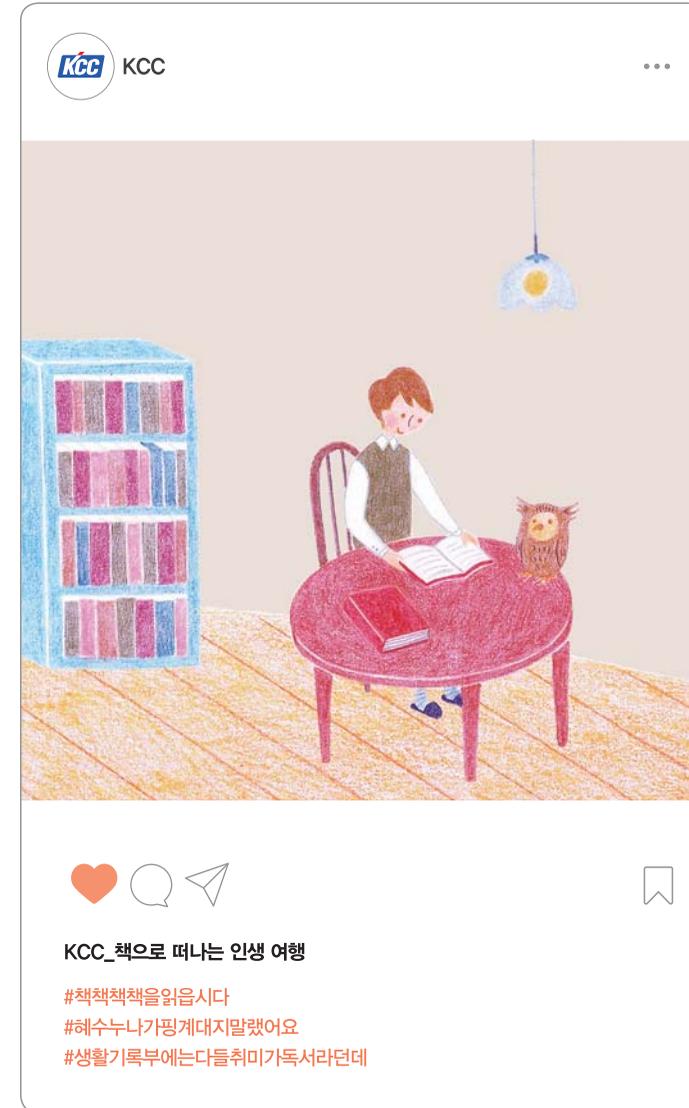
KCC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ccstory

KCC Blog
blog.kccworld.co.kr/

다 함께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코너 <함께하는 걸음>. 12달 동안 제시되는 캠페인 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열한 번째 주제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책읽기'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하루에 30분 책을 읽읍시다”



KCC_책으로 떠나는 인생 여행

- #책책책책을읽읍시다
- #혜수누나가핑계대지말랬어요
- #생활기록부에는다들취미가독서라던데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매일 집과 회사를 오가는 삶에 혹시 지루함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정보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사회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을 향한 시선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지만 바쁘고 지루한 일상은 우리에게 그럴만한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 속에서도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 억지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점심 식사 후 여유 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등 피로감에 낭비되었던 이 시간들 중에서 30분만 활용해 보세요. 종이로 된 책도 좋고, 오디오북도 좋습니다. 매체와 상관없이 매일 짧게나마 소설 속 주인공과 동행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와 함께하는 걸음이 늘어나는 만큼 당신의 전문도 점점 더 넓어져 갈 것입니다.



바닥재 업계 최초
반려동물 제품인증 획득



오늘도 걱정없이 도담도담

미끄러질 걱정없이
실수해도 새어들 염려없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튕굴며
우리 아이도, 강아지도 건강하게 자라주렴

숲^林도담 3.2 / 2.7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가정용바닥재 부문
5년 연속 1위



한국품질만족지수
PVC바닥재 부문
11년 연속 1위

'도담도담'이란 아이가 탈없이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제품 코드명: FNR32-4873 / 컬러명: 탠저린 오크



한국에건협회 놀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



논슬립 표면코팅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감



이음매와 틈새가 적은 시트타입으로
청소가 쉽고 위생적



고탄력 쿠션층으로
충격흡수성 우수



아토피 안심마크 획득
친환경 인증 제품

* 어린이/고령자/반려 동물의 미끄러짐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 짙은 색/농도의 이물질은 제품에 배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닦아내십시오.